



## 수직고경 상실과 교합평면 붕괴를 가진 환자의 전악 수복 증례

구 태 훈\*, 강 동 완 |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
전악에 걸쳐 광범위한 마모와 부분적인 치아 상실로 수직고경의 감소와 교합 평면이 붕괴된 경우 그 변화의 과정 동안 근육 및 신경계는 변화에 적응하게 된다. 따라서 새로운 교합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직고경의 회복과 교합평면을 재형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저작 근육과 신경계의 적응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. 최종적인 교합의 구성은 임의적 교합을 심미적 기능적으로 평가한 후 단계적 보철 치료과정을 거치게 된다.

본 증례의 환자는 61세의 남자 환자로, 전악에 걸쳐 광범위한 마모와 부분적인 치아 결손으로 인해 심미적인 문제와 hypersensitivity, 그리고 저작의 불편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초진 시 상, 하악 전치부는 심한 마모로 치관의 길이가 매우 짧아져 있었고 절단교합의 양상을 보였으며, 구치부는 부분적 결손과 대합치의 정출 그리고 기존 의치의 심한 마모로 교합평면이 붕괴되어 있었다.

수직적 수평적 약간관계에 대한 검사 후 교합기상에 약간관계를 이전하였고, 교합기상에서 수직고경을 적정량 거상시킨 후 diagnostic wax-up을 시행하였다. 이 wax-up을 바탕으로 provisional restoration을 제작하였고, 적절한 전방유도와 대합관계, 심미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하였다. 장착 후 2개월 간 follow-up을 시행하여 환자의 적응도를 평가하였다. 환자의 원활한 저작기능 회복과 hypersensitivity의 소실, 심미적인 만족 등을 확인한 후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였다.

본 증례는 상악과 하악 모두, 고정성 보철물과 함께 부분적인 치아 결손 부위에서 attachment를 이용하여 심미적인 보철물을 제작한 후 심미적, 기능적으로 양호한 임상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